

# 정읍사 여인 천년의 사랑이 온다

26·27일 '정읍사 문화제' 제례·축하공연·가요제 등 풍성 체험 행사·먹거리 부스도 마련



정읍사의 대표적 문화 축제인 제35회 정읍사 문화제가 26, 27일 양일간 정읍사문화공원에서 개최된다. 지난해 축제 채수예의 모습. <정읍시 제공>

정읍시의 대표적 문화축제인 제35회 정읍사 문화제가 26, 27일 이틀간 정읍사문화공원에서 개최된다. 현존 최고 백제가요 '정읍사'와 정읍사 여인의 송고한 사랑을 기리는 이번 문화제는 다채로운 행사와 함께 진행될 예정이다.

정읍시와 (사)정읍사문화재단(이사장 조택수)이 주최·주관하는 이번 행사에서는 '제30회 시민의 날'과 '제17회 평생학습축제'도 함께 열려 더욱 풍성한 프로그램을 선보일 계획이다.

공식행사로서는 채수예, 정읍사여인제례, 부모 여인상 시상, 기념식, 축하공연, 정읍사가요제 등이 진행된다.

26일 정읍사문화제와 시민의 날 기념식 축하공연에는 인기 가수 조항조, 김태연, 별사랑, 김소유 등 유명 가수들이 출연하며, 27일 정읍사 가요제에서는 장운정, 정수라, 신인선이 무대를 빛낼 예정이다.

행사 기간에는 정읍사를 주제로 한 다양한 체험 행사와 먹거리 부스가 마련돼 가족단위 방문객에게 즐거움을 선사한다.

또 10월 14일부터 11월 15일까지 정읍사문화공원 일원에 설치된 야간 경관조명은 가을밤의 색다른 볼거리로 행사장을 찾는 관람객들의 눈길을 사로잡을 전망이다.

이학수 정읍시장은 "정읍의 역사와 문화를 널리

알리고, 정읍사의 위상을 높이기 위해 이번 문화제를 기획했다"며 "다채로운 프로그램을 통해 관람객들에게 풍성한 문화체험 기회를 제공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읍=박기섭 기자·전북취재본부장 parks@

## 정읍시 '단풍미인쇼핑몰' 입점업체 모집

농가 등 이달말까지... 택배비·포장재·마케팅 지원 혜택

정읍시가 지역 농가와 업체들의 온라인 판로 개척을 위해 지역 중진 '단풍미인쇼핑몰·사진'의 신규 입점자를 모집한다고 19일 밝혔다.

입점 대상은 정읍시에 주소를 두고 정읍에서 생산·가공된 농특산물과 가공식품을 취급하는 통신판매 자격이 있는 개인이나 단체다.

가공식품의 경우에는 정읍에서 생산된 농·수·축·임산물의 주원료가 50% 이상 함유돼야 한다.

입점을 희망하는 농가와 업체 등은 31일까지 입점 신청서와 기타 서류를 준비해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제출하면 된다.

신청·접수가 완료되면 서류 및 현장 평가를 통

해 최종 입점 여부가 결정된다. 현재 단풍미인쇼핑몰에는 총 72개의 업체가 431개의 제품을 선보이고 있다.

입점이 확정되면 택배비와 포장재 제작지원, 할인기획전 참여, 온·오프라인 홍보 등 다양한 마케팅 지원 혜택도 받게 된다.

정읍시 관계자는 "온라인 소비가 일상화된 지금 지역 농가와 업체들이 단풍미인쇼핑몰을 통해 온라인 판로를 넓히고 다양한 상품 구성을 통해 매출 증대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정읍=박기섭 기자·전북취재본부장 parks@



## 남원시 '축산악취 개선' 사업비 11억 확보

농식품부 공모사업 선정...친환경 축산업 육성·민원 예방 기대

남원시는 농림축산식품부 주관 '2025년 축산악취 개선' 공모 사업에 선정돼 총 사업비 11억4000만원을 확보했다고 22일 밝혔다.

이 사업은 가축분뇨 적정 처리 및 축산악취 저감을 위한 시설·장비 지원을 목적으로 추진된다. 이

번 공모에는 전국 11개 시도, 57개 시·군이 신청, 남원시를 포함한 30개 지역이 선정됐다.

앞서 남원시는 지역 여건 반영의 축산악취개선 사업계획을 자체 수립했다. 공모 선정에 따라 17개소(축산농가 15개소, 퇴·액비 유통업체 2개소)

에 송풍식 퇴비사, 액비저장조, 액비운반차량, 고액분리기 등을 지원할 계획이다.

가축분뇨 적정처리를 통한 친환경 축산업 육성과 축산악취 민원 사전 예방에 큰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남원시 관계자는 "분뇨처리방식 개선 및 가축분뇨 처리 최적화로 축산업의 부정적 인식을 개선하고 인근주민 삶의 질 향상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남원=백선 기자 bs8787@kwangju.co.kr

## 고창군, 장애인 심뇌혈관질환 건강관리

보건소, 혈압·혈당·혈관협착도 등 건강체크 프로그램 진행

고창군이 지역 장애인들의 심뇌혈관질환에 대한 건강관리에 나섰다.

고창군 보건소는 지난 18일 군 장애인복지관에서 전북지역장애인보건센터, 전북권역심뇌혈관질환센터와 연계한 심뇌혈관질환 건강체크 프로그램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심뇌혈관질환이란 별다른 증상이 없어 조기발견이 중요한 질환으로 심장, 뇌혈관계에 발생하는 모든 질환을 지칭하는 용어다. 심근경색증, 뇌졸중 등이 포함됐다.

군 보건소는 이에 따라 혈압, 혈당, 4종 콜레스테롤 등 기초검사와 체성분검사를 비롯해 혈관경

직도, 혈관협착도, 혈관나이 등 동맥경화검사를 했다.

이후 검사결과를 종합적으로 진단해 전북권역심뇌혈관질환센터 이영훈 교수가 일대일 맞춤형 건강상담을 실시했다. 또 향후 심뇌혈관질환 발생 위험성을 확인하고 이를 예방하기 위한 위험인자를 관리하도록 건강교육도 함께 진행했다.

유병수 고창군보건소장은 "심뇌혈관질환은 조기 발견과 생활 습관 개선이 중요하다"며 "앞으로도 장애인의 자가 건강관리 능력 향상을 위해 다양한 사업을 연계 운영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고창=김형조 기자 khj@kwangju.co.kr

## 코스모스 만발한 정원에서 가을음악회

고창군 꽃 정원서 26일·다음달 2일...팬플룻·기타·색소폰 등



고창읍 노동저수지 꽃 정원 공연 모습. <고창군 제공>

고창군이 '치유 문화도시' 홍보를 위해 오는 26일과 다음 달 2일 고창읍 꽃 정원에서 가을 음악회를 개최한다.

음악회는 오후 1~5시 열리며 팬플룻, 기타, 색소폰, 오카리나 등 가을과 어울리는 다양한 악기가 연주될 예정이다.

특히 오는 26일에는 바이올리니스트 변재현과

첼리스트 변재홍의 공연도 준비돼 있다.

고창군은 고창 관광의 새로운 랜드마크를 위해 고창읍 노동저수지 아래 난밭에 꽃 정원을 조성했다.

올해 가을에는 벚달마편초를 비롯해 백일홍, 코스모스, 국화꽃이 만개해 군민과 관광객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고 있다. /고창=김형조 기자 khj@

## 남원시 '목요 야간 민원실' 매주 운영

여권 발급도 가능

남원시는 바쁜 일상생활로 평일 근무시간 내 시청 방문이 어려운 시민들에게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매주 목요일 저녁 8시까지 '목요 야간 민원실'을 운영하고 있다고 22일 밝혔다.

목요 야간 민원실은 여권 신청·수령과 주민등록 등·초본, 인감증명 등 민원서류 발급이 가능하다. 특히 최근에는 해외여행 수요에 맞춰 여권 민원 처리에 중점을 두고 있다.

여권은 거주지 상관없이 신분증과 6개월 이내 촬영한 여권용 사진 1매, 유효기간 남은 기존 여권

을 지참하면 발급 신청이 가능하다.

평일 근무시간이나 야간 민원실 이용이 어려운 시민들은 기존 전자여권 발급 이력이 있으면 온라인 '정부24'에서도 '온라인 간편서비스'를 활용해 신청할 수 있다. 단, 온라인 신청자는 여권 수령 시 반드시 본인이 방문해야 하며 대리 수령은 불가능하다.

김민주 남원시 민원과장은 "여권 야간 민원창구를 통해 평일 근무시간 내에 방문이 어려운 시민들이 많이 이용해 주시기를 바란다"며 "시민이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민원 행정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남원=백선 기자 bs8787@kwangju.co.kr


www.e-dk.co.kr

## 쾌적하고 깨끗한 생활을 위한 스마트 가전이 한 곳에!



벽걸이 공기청정살균기



스탠드 공기청정살균기



제습기



레인지후드



전기룩탑

공기청정살균기 | 공기청정기 | 공기순환기 | 제습기 | 레인지후드 | 전기룩탑 판매 및 A/S 문의 1544-1154